

전주시, “대한민국 놀이혁신 선도” 지자체로 추진

국비 1억원 확보... 7월부터 매월 300여명 아동 혜택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놀이사업 등 운영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인 전주시가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환경을 갖춘 대한민국 놀이혁신 선도 지자체로 인정을 받았다.

시는 보건복지부가 놀이를 통해 아동이 창의성과 사회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아동놀이사업의 개발과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 '2020년 놀이혁신 선도지역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놀이혁신 선도지역 공모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5월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시는 총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오는 7월부터 매월 300여 명의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놀이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야호아이숲과 유아숲체험원, 야호예술놀이터, 야호책놀이터 등 3곳을 구축해온 다양한 전주형 놀이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놀이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전주시역내 다양한 놀이공동체와 연계한 숲놀이, 팝놀이, 전통놀이, 예술놀이 등 놀이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올해 하반기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하는 '놀이의 날' 행사에서 전



전주시는 보건복지부가 놀이를 통해 아동이 창의성과 사회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아동놀이사업의 개발과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 '2020년 놀이혁신 선도지역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주 야호놀이 정책을 놀이정책 우수 사례로 전국 지자체에 소개하게 된다. 이에 앞서 시는 3곳 전주형 아동정책인 △숲놀이터 △책놀이터 △예술놀이터 △야호학교 △야호부모교육 등 야호 5대 정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놀이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일례로 시는 아이들이 숲 속에서 자연을 벗 삼

아 뛰어놀 수 있는 야호 아이숲을 확충해왔으며, 천편일률적인 놀이시설물을 갖춘 놀이터가 아닌 창의적인 놀이공간을 만드는 놀이터 환경개선 사업도 중점 추진해왔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놀이 관련 전담부서를 만들기도 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장은 “코

로나19 여파로 우울감, 무기력감 등 아동들의 코로나블루 현상을 치유할 수 있도록 놀이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며 “아동들이 놀 권리를 보장 받고 다함께 뛰어놀며,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청년정책 온라인플랫폼 가동

‘청정지대’ 본격 운영... 정책·정보 쉽게 확인

전주시청 청년들은 앞으로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자신이 원하는 정책과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전주시가 전주시청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정보들을 한 곳에 모은 청년정책 온라인플랫폼을 가동했기 때문이다.

시는 청년정책의 접근성과 정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전주시와 유관기관의 청년 관련 정책과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청년정책 온라인플랫폼인 ‘청정지대(youth.jeju.go.kr)’를 본격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주시청 청년정책 제안기구인 청년희망단이 정한 ‘청정지대’라는 명칭은 ‘청년정책 알리지대’에서 따왔다.

시가 청년정책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하게 된 것은 청년희망단이 가장 필요하다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그간 전주시청 청년들은 청년정책 관련 정보가 부서와 기관별로 독립적으로 홍보되고 있어 필

요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시는 온라인플랫폼에 알림마당, 청년정책, 청년공간, 청년커뮤니티 등의 메뉴를 만들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청년들은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해 △면접장장 무료대여 △소상공간 비빌 대관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신청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년희망단 제안 사업인 청년희망우체통을 통해 현 청년들의 고민을 공유할 수도 있다. 전주시청 게시판에서는 전주시청 청년들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소개된다.

나아가 시는 온라인플랫폼이 단순히 청년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류를 촉진할 수 있도록 1:1 상담 기능과 자유게시판도 운영해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윤상 기자

덕진공원 관광 활성화 추진

전주시, 18일까지 다양한 문화 콘텐츠 운영할 보조사업자 모집

전주시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 여행 심리 회복에 대비해 덕진공원에서 계절별 이벤트와 전통문화공연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운영키로 했다. 시는 올해 총 2억 3,000만원을 투입해 덕진공원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계절별 이벤트 및 스토리텔링’과 ‘해설사 프로그램 및 커뮤니티 지원사업’, ‘전통문화공연’ 등 3개의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8일까지 관광·문화 관련 프로그램 운영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운영 보조사업자를 모집한다. 먼저 ‘계절별 이벤트 및 스토리텔링’의 경우 덕진공원 그림 그리기, 가족사진 촬영대회, 덕진공원 옛날 사진 전시회, 덕진공원 여행이야기 등 여행객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또한 ‘해설사 프로그램 및 커뮤니티 지원사업’은 덕진연못, 건지산, 동물원 등 덕진공원 일대의 이야기 강좌와 현장교육을 진행하거나 걷기 행사, 마을장터 등 공동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통문화공연’의 경우에는 여름방학(7~8월) 기간 중 주 2~3회 공연을 펼치거나 연화교 개통과 연계한 공연,

기타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공연 등을 진행하면 된다. 신청을 원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전주시 관광산업과(대우빌딩 6층)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덕진공원을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지로 만들기 위해 안전진단감사에서 D등급을 받은 기존 철계현수교 형태의 연화교를 전통 석교 형태로 재가설하고, 40년이 경과돼 노후화된 연화정도 철거 후 전통정원으로 만들고 있다. 향후 시는 연화교 재가설 및 연화정 재건축과 함께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더해지면 덕진공원이 대한민국 관광거점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명소를 자리매김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국내관광에 관심이 많아진 만큼 덕진공원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보다 풍부한 볼거리 및 즐길거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덕진공원과 한옥마을, 객리단길까지 여행객들의 발걸음이 전주 전역으로 넓혀질 수 있도록 관광정책 내실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덕진구, 하가지구 하늘공원 분수대 등 6개소 청소·소독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김형조)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 환경 제공과 공원 이용객의 친환경 휴식공간 조성에 나섰다.

덕진구는 하가지구 하늘공원 분수대 등 6개소를 청소, 소독하고 어린이 수경시설 3개소에 휴식공간을 위해 그늘막과 평상을 설치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덕진구는 어린이 수경시설 4개와 일반분수 2개소 6~8월 가동을 위해 청소 및 소독, 주1회 용수교체, 월2회 수질검사와 정기점검을 한다.

지난해 어린이 수경시설인 만성5호 어린이공원에 그늘막과 평상 시범 설치에 이어 하늘공원, 능들공원, 만성2호공원에도 확대·설치해 여름철 분수에서 물놀이 하는 어린이와 시민들에게 최적의 휴식처를 제공한다.

또한 안골어린이 공원 등 60개소 공원 어린이놀이터 대상으로 안전 점검 등도 진행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6월까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특별 지도·단속

전주시가 아파트 가격거품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중개 행위를 뿌리 뽑기로 했다.

시는 최근 분양권 불법 거래 등으로 인해 일부지역 아파트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중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12일부터 오는 6월까지 전주시역 부

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완산·덕진구청과 합동 단속반(3개반 9명)을 꾸려 부동산 불법행위를 특별 지도·단속키로 했다.

중점 단속내용은 △분양권 불법전매 중개 △이중거래 계약서 작성 △허위 자료 제출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

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요율표 등 중개업소 게시의무 이행 △중개보수 과다 징수행위 등이다.

시는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거나 질서 교란을 유발한 업소는 적발해 행정조치 하거나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 30대 여성 강도살인 피의자, 20대 여성 추가 살해 정황 드러나

전주 30대 여성 강도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가 이 사건 말고도 또다른 살인 사건을 저지른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부산경찰서로부터 20대 여성 실종신고와 관련, 공조 수사 요청을 받았다.

이번에 실종된 여성인 A(24)씨는 부산에서 전주로 온 뒤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실종이 최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B(31)씨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A씨가 마지막으로 연락한 사람은 B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씨와 연락을 주고 받았으며, 지난달 19일 전주한옥마을 인근에서 B씨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실종 신고 직후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동선을 추적한 결과 B씨가 A씨의 목을 조르는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 A씨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어 위치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뉴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